

기독교 문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송영옥(영문학 박사, 국제 PEN 정회원, 대경기독교문인회 부회장)

<목 차> -----

- 제1장 서론
- 제2장 기독교문학의 필요성과 한국기독교문학의 현주소
 - 1. 기독교문학은 왜 필요한가.
 - 2. 한국의 기독교문학의 현주소
- 제3장 기독교문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 제4장 기독교문학의 정립
 - 1. 기독교문학의 본질: 기독교적 경험
 - 2. 기독교문학의 본질: 기독교적 상상
- 제5장 결론

제1장 서론

이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학자들과 작가들은 문학과 기독교신앙의 통합을 위한 기반으로 성경의 본보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과 성경은 하나의 문학작품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루이스(C.S.Lewis)는 “건전한 의미에서, 성경은 결국 문학이므로 문학으로서가 아니면 올바르게 읽을 수 없다.”¹⁾ 고 하였으며 프라이(Northrup Frye)는 “성경은 실제로 문학이 되지 않고도 최대한 문학적이다.”²⁾라고 하였다.

그리고 폴진(Polzin), 크로산(Crossan), 데트바일러(Detweiler)등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연구의 도움을 얻기 위해 문학적 방법을 도입하였으며³⁾ 알터(Robert Alter), 라이켄(Leland Ryken), 커모드(Frank Kermode), 프라이(Northrop Frye)등의 문학 연구가들이 문학 비평으로서의 성경에 접근함으로써 미학이나, 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독자와 청중에게 감명을 주는 예술적 수단으로서의 성경 연구를 체계화 하고 있다.⁴⁾ 그리고 이미 금세기의 위대한 작가들, 엘리엇(T. S. Eliot)나 카프카(Franz Kafka), 톨스토이(Lev N. Tolstoj)등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성경은 추상적인 교리의 형태로나 조직신학의 형태로가 아니라 문학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석하면서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문학적인 종교라고 주장하였다.⁵⁾

1) C. S. Lewis, *Reflections on the Psalms* (Glasgow: Collins, 1961) 10.

2) Northrup Frye, *The Great Code* (London: A7, 1982) 62.

3) D. Crossan, " 'Ruth amid the Alien Corn': Perspectives and Methods in contemporary Biblical Criticism," in the *Biblical Mosaic* (ed. R. Polzin and E. Rothman (Philadelphia: Fortress, 1982)

4) Alter, Robert and Frank Kermode,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7)와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그리고 Ryken, Leland, *The Literature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74)

5) T. S. Eliot은 'Four Quartets' 의 제 2부에서 “가톨릭적인 심경, 칼빈적인 정신유산과 청교도적인 기질을 겸비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작품세계를 규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인간과 창작하는 시적정신과의 사이의 미묘한 유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고전으로부터 프랑스의 상징주의에 이르는 다채로운 표현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문학은 선교 110주년을 넘긴 현재까지 ‘기독교 문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담론의 언저리만 맴돌고 있을 뿐 그 개념을 정립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은 선교 초부터 문학예술은 교리 선포와 선교 그리고 교회성장의 이면에서 앞으로 나설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작가나 학자들은 그 개념정의에 밀도 있게 접근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독교문학의 예술성을 논할 준거조차 부재인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문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하나는 기독교문학의 본질, 즉 개념의 정의와 관계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문학과의 관계에서 야기된 문학의 작품성과 예술성의 문제이다. 즉 기독교 문학이란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쓴 간증문학이나 선교를 목적으로 쓴 설교문학, 그리고 기독교인 작가의 작품이거나 작품의 소재와 배경이 성서를 근거로 하여 작품이 구성되었을 경우로 국한되어있으며 그로인하여 기독교문학 작품은 일반적으로 정의 되는 문학작품에 비해 작품성과 예술성에서 매우 뒤떨어진다.

그 구체적인 예를 90년대에 두드러졌던 선교문화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복음전파의 특징 중의 하나인 문화선교가 각광을 받고 봄을 일으키면서 문학과 선교를 하나로 묶어 마치 문학의 선교 적 특성이 곧 기독교문학의 본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 무엇이 기독교문학인가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신앙고백이나 간증을 소재로 한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기독교소재론에 집착하는 한계를 들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문학의 연구 성과를 무시한 기독교문학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문학은 일반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문학의 예술성에서 변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첫째 목적은 기독교문학의 개념을 미학적 입장에서 정의함에 있다. 문학에서의 창조적 상상력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 아무리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을 강조하여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문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미학적 언어로 표현하여 감동을 줌으로서 하나님의 심오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해야 한다. 문학의 옷을 입고 선교의 직접성을 강하게 풍기면 문학적 설득력이 약화 되어 감동이 독자에게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기독교문학이 예술적인 가치와 미학에 있어서 일반문학보다 뒤떨어져있고 문학의 중심부에서 온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한다.

두 번째는 기독교문학의 목적을 밝혀 그 중요성을 상기시킴으로 한국의 기독교문학의 활성화를 시도함에 있다. 문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그 속에 담아낸다. 따라서 기독교문학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미와 은총과 그의 세상에 반응하게 하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추함과 무질서와 갈등에 대하여도 반응하게 한다. 우리가 문학을 통하여 복락원에의 꿈을 꾸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독교문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상호 교류할 수 있고 그 안에 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문학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문학인 동시에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위에 이룩하는 주된 도구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기독교문학의 활성화란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회복을 뜻한다.

세 번째는 기독교문학의 예술성과 기독교 작가란 누구인가에 대한 준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문학은 그 관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문

으로 거침없이 미학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카프카문학은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관찰』 『판결』 『심판』 등의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으며 톨스토이는 내면생활의 모순에서 오는 사상적 동요를 과학이나 철학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고 기독교에서 구원을 얻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작가적 소신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과 『요약복음서』 『교회와 국가』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등의 작품을 통해 삶과 신앙과 문학을 일체화 시켰다.

학이란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문학이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미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제와 소재를 미학적으로 형상화 하였든 간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소재들이며 내 작가적 경험과 상상역시 그 분의 창조세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문학은 바로 창조세계의 리얼리티를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성경적 현실 인식은 문학을 단순히 삶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삶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 변형된 삶이든 간에 문학은 그것을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수용할 수 있고 작가의 역량에 따라서 그것을 언어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 작가의 역량이라는 것은 문학을 통해 단순히 삶의 현실을 반영하기만 하는 차원을 넘어섬을 말한다. 삶을 묘사하는 대신에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미의 섬광을 포착하도록 돕는 능력을 말한다. 작품의 예술성은 이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소재의 예술적 준거란 기독교적 교리에 가두지 말고 열어주는 글쓰기에 있다. 열어주는 글쓰기 속에는 언제나 원초적 일상의 싱그러움과 닿음이 있고 감동이 있다. 기독교의 교리나 윤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교훈적인 글에서는 독자는 자신의 불신앙과 왜소함을 부끄럽게만 느낀다. 독자는 깊이 깨우침을 주어도 자신을 주눅 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넉넉함을 원한다. 간헐에서 열림으로 가는 은밀한 통로 하나를 허락 받고 싶어 한다. 이 통로가 작품이 주는 섬광이다.

섬광은 연약한 실존을 다독여줄 수 있는 은근하고 따뜻한 배려이며 산뜻한 새벽공기 같은 희망의 기운이다. 독자들은 기독교문학이 소외와 단절로부터 그리고 갈등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나를 너에게로 이어주는 문학이길 원한다. 이 때 문학은 하나의 구원이 될 수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비난받았을 때보다 스스로 눈치 채게 했을 때 아주 강력한 힘으로 감동을 받는다. 작가의 능력이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 전율적인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작가와 독자는 이렇게 몸으로 맞물려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서양의 기독교역사를 통하여 기독교문학의 필요성과 한국의 기독교문학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이제까지 명분만 유지해온 한국의 기독교문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서 개념정립의 중요성과 작품 활동의 활성화를 시도하고자한다. 제 3장에서는 기독교문학의 목적을 정립하고 그 목적을 설정한 역사적 근거를 밝힌다. 이로써 기독교문학과 일반문학은 그 예술성에서 동등한 관계이며, 관점에 따라서는 일반문학이 기독교문학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자한다. 이 결과로 제 4장에서 기독교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자한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 문학 작가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기독교 문학 작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 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본고의 전개는 기독교 문학과 삶의 관계성을 중시 할 것이며 그 결과 문화의 수혜자로서의 독자와 작가의 관계도 정립될 것이다. 즉 기독교문학의 향유는 삶의 기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것이 창조세계의 목적중의 하나임을 상기시켜 기독교문학의 목적, 즉 인간의 문학으로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위에 펼쳐보이고자 하는 -의 정당성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 결과로 우리는 기독교문학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우리에게 무엇인가.(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정신적 질병인 삶과 하나님에 대한 ' 위축된 인간의 찬양력과 상상력 ' 6)은 회복될 수 있다고 본

6) Harvey Cox, *The Feast of Foo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9) 11-2.

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문학은 하나님의 사랑, 즉 인간에 대한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쉘링저(Arthur Schlesinger)는 '그릇된 문학관 역시 현대인들의 삶을 일련의 분산된 상투어귀로 전락시키고 주체의식을 상실하게 만들어 수동적이고 순응주의자가 되게 하였다' 7)고 하였다. 이처럼 범속과 균일성으로 만족을 느끼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상의 푸른 별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힘의 일부도 기독교문학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문학으로서의 기독교문학만이 명실공히 인간에 기여하는 인간의 문학으로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위에 펼쳐나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기독교 문학의 활성화는 하나님나라의 총체적 회복을 의미한다.

또한 기독교문학의 목적과 개념정의에 대한 명정한 인식은 기독교 독자들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문학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극심한 문자몰락의 시대에 처해있는 우리가 섹스피어와 밀턴을 다시 읽으면서 삶을 감동적으로 밀도 있게 느끼며 위대하게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이어즈(Drothy Sayers)는 '위대한 일은 ... 하나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진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 임마누엘을 추방하지 않는 일' 8)이라 하였다. 나는 미학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추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문학이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미학적 언어로 가시화하는 작업이라는 작가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좁은 의미에서는 나의 신앙 패러다임 안에서 조망되는 기독교문학의 개념정립이라고 생각 된다.

제2장 기독교문학의 필요성과 한국기독교문학의 현주소

1. 기독교문학은 왜 필요한가.

기독교 문학의 개념정립과 그 필요성을 논의 하기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문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여 협의의 문학개념을 정립하고자한다. 보다 진문화된 개념규정으로부터 문학의 정확한 의미가 들어날 수 있다고 보며 기독교문학은 문학과 기독교문학의 공통요소들 속에서 논의 될 것임을 전제하려고 한다.

문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노력은 멀게는 고대그리스의 철학자들에서부터 가깝게는 1960-7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고 시도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개념상의 단일하고 확정적인 인식을 거부한 채 오늘날 정보화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도 변함없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문학은 역사의 산물이며 문학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생산되어온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담론의 공통적인 정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학의 내용면에서 '문학의 본질은 현실의 반영이며 재현이다' 9), 둘째, 문학의 형식면에서, '문학이란 상상과 감정을 통해 표현하는 언어예술' 10)이다, 셋

7) Arthur Schlesinger, Jr., "Implications of Leisure for Government" in *Technology, Human Values, and Leisure*, ed. Max Kaplan and Phillip Bosserman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77.

8) Dorothy Sayers, *Christian Letters to a Post-Christian World*, ed. Roderick Jellem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69) 71.

9)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6) 65.

10)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Great Britain: Blackwell Publishers Ltd, 1996) 3.

째, 문학의 기능면에서 ‘문학의 목적은 독자에게 가르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¹¹⁾이라는 점이다. 특히 텍스트로 널리 사용되는 웰렉(Wellek)과 워렌(Warren)의 문학기론(Theory of Literature)에는 “문학을, 문학예술, 즉 상상의 글로 제한해서 사용할 때, ‘문학’이라는 용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¹²⁾라고 말함으로써 문학의 특징으로 ‘허구성’ ‘창작성’ 그리고 상상력 ‘을 들고 있다.

결국 문학기론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며 작가의 시각에 따라 담아낼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작가의 수만큼 다양하고 많은 문학적 제제들이 존재할 수는 있고 작가의 자질과 작품의 예술성은 상상력에 의해 결정이 된다. 창조적 상상력만이 문학을 언어나 글자를 매개로 하는 다른 학문 또는 사상과 분리시켜줄 수 있다. 이 때의 상상력은 기교적 언어표현, 즉 문학과 동일한 의미이며 문학언어를 일상언어와 대조를 이루게 만든다. 이러한 특질들은 결국 문학의 세계는 그 자체의 독특한 주체성과 그 자체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독교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담론 역시 문학과 기독교의 관계의 패러다임 속에서 오래 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며 그 대답 역시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현저하게 달라졌다. 때문에 문학과 기독교의 근대적 개념의 역사적 이해 없이는 기독교문학의 개념의 정립이 불가능하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 797년에 알쿠인(Alcuin)과 터덜리언(Tertullian)이라는 성서학자가 문학이 기독교 신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놀라움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잉겔드가(Ingeld): 『베오울프』(영국의 고전문학작품의 주인공)와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¹³⁾ 그리고 ‘진실로 아테네(여기서는 예술의 의미)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¹⁴⁾라는 질문을 던졌으며 로마시대에는 ‘호라티우스(Horace): 로마의 문인)와 시편작가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버질(Virgil: 로마의 시인)과 복음서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물론 이 말은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다. 허구의 세계인 문학과 진리인 성서와의 갈등을 표현하기 위한 담론이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문학과 기독교의 피할 수 없는 상호관계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 증거는 서양문학사에서 3000년 동안 고전으로 읽혀온 호머(Homeros)의 『일리아드』는 서양이 기독교화한 이후에도 역시 존중받는 고전으로 인정되었으며 기독교의 대표적인 시인인 단테와 밀턴도 애독하여 자신들 작품의 기독교적 수용의 모델로 삼았다. 실제로 호머의 『일리아드』나 로마시인 버질의 『아에네이드』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고전으로 읽히는 『신곡』이나 『실낙원』은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밀턴은 『실낙원』의 기독교적 수용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알기전의 호머나 버질, 즉 이교도의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있다고 믿었으며 그 것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품 속에 구현하면서 기독교적 진리를 살리려고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이역사속에서 우리는 문학의 신앙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

서양문학의 최대의 황금기인 낭만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예술적 상상력이 창조적 힘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예술지상주의는 문학이 종교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고를 낳았고 작가들은 문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문학 이론에서

11) Leland Ryken, *Christian Imagination*, (Shaw Books: Water Brook Press, 1968) 63.

12) R. Well다 and A. Wallen, *Theory of Literature*, 3d ed. ,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7) 22-26.

13) Letter to Higbald, as quouted in Eleanor S. Duckett, *Alcuin, Friend of Charlemagne* (New York: Macmillan, 1951) 209.

14) Leland Ryken, *Triumphs of the Imagination*, (Shaw Books: Water Brook Press, 1968) 7.

는 문학의 확정된 의미의 부정과 함께 모든 문학작품은 허구에 불과하며 언어의 현란한 조합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현대문학은 사유와 광기의 양극단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학적 현실에서 기독교문학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은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한편, 이미 존재하는 문학적 신호들을 성서적으로 내보내주는 일이 된다.

또한 일반 문학 속에서 문학작품의 “가능케 하는 대화들(enabling conversation)”¹⁵⁾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는 성경문학을 읽을 능력을 갖기 어려우며 작가역시 문학적 능력(competency in literature)을 향상시킬 수 없다. 본고의 논제가 끊임없이 일반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며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문학의 개념정립은 문학의 미래에 대하여도 하나의 비전이 될 수 있다.

한국문학을 주도해온 사조는 70-80년대의 리얼리즘이었다. 군사혁명과 산업사회에서의 노동과 인간성회복이라는 제 문제와 광주 항쟁 등의 정치적 요인들이 문학의 리얼리즘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리얼리즘은 문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독자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80년대 한국문단이 당면했던 가장 큰 시련은 모든 것을 리얼리즘 아니면 모더니즘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오류에서 비롯되었다. 금력이나 권력과 결탁했던 일부 타락한 문인들이 모더니즘의 대표자로 분류되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리얼리즘적 요소, 모더니즘적 요소,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요소를 동시에 가진 채 방황하였다. 90년대의 문학의 시대적 배경은 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한 이념의 종말이었다. 후기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담론의 시대였던 리얼리즘 문학은 사라져가고 개인의 발견과 감각과 관능을 중시하고 대중성과 세속성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주도되는 현대문학은 리얼리즘적 문학의 역할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 때문에 독자는 깊은 사유와 논리의 내용보다는 감각적이고 흥미위주의 작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질서의 회복’ 또는 ‘총체성의 회복’의 붕괴에 있다.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은 그나마도 현재를 무질서와 파편의 상태로 파악을 하면서도 질서와 총체성이 존재 했던 고전시대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고 문학적 탐색을 통한 그의 궁극적인 회복을 믿었고 또 추구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는 그러한 향수나 신념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작가들은 총체성과 질서에 대한 신념은 허위이고 기만이라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이로 인하여 현대문학은 광기와 사유의 극단적 분열의 양태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선사상이랄까, 정신주의 또는 형이상학 등의 말들의 규범과 격자성 속에서 유형화 되고 있거나 반대로 극도로 유동적인 해체나 고백 같은 과감한 의식으로 표류하고 있다. 특히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 후자의 경향은 탈 규격화 된 과감한 의식으로서 광기 자살 자해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는 리얼리즘의 바탕위에서 예술적 사유에 의해 지배되는 형이상학적 정신체계이며 후자의 경우는 리얼리즘적 규범들로부터 이탈된 상태이며 예술적 광기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대문학은 두 가지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나는 문학이 언어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의 경우 형이상학적인 관념의 세계에서는 예술에 한계가 쳐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문학이 삶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는 삶과 문학의 보완의 관계를 허물게 된다. 본 논문은 어떻게 하면 관념적 한계를 극복하여 문학이 무한한 상상으로 현실을 뛰어넘고 열린 문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와 가치의 부재로 야기된 혼란의

15) J. Culler, *Structuralist Poetics* (Ithaca: Cornell, 1975) 113.

한 상상인 흔들리는 주체가 그 설 자리를 찾아서 문학과 삶의 공존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 답을 기독교문학이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대문학의 내면화와 감각화와 대중화는 기독교적 관점으로는 철저한 세속화일지도 모른다. 문학의 세속화로 문학은 왜 소해졌다. 더 이상 인류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던 고전의 생명력과 같은 작품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문학적 현실에 대하여 기독교문학은 하나의 구원이 될 수 있다.

2. 한국의 기독교문학의 현주소

한국의 기독교 문학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기독교 문학의 본질, 즉 개념의 정의와 관계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문학과의 관계에서 야기된 문학의 작품성과 예술성의 문제이다. 즉 기독교 문학이란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쓴 간증 문학이나 선교를 목적으로 쓴 설교문학, 그리고 기독교인 작가의 작품이거나 작품의 소재와 배경이 성서를 근거로 하여 작품이 구성되었을 경우로 국한되어있으며 그로인하여 기독교문학 작품은 일반적으로 정의 되는 문학작품에 비해 작품성과 예술성에서 매우 뒤떨어진다. 그 결과 기독교 문학은 일반문학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문학의 개념에 대한 정의도 분명치 않으며 작품의 예술성을 논할 수 있는 준거가 거의 없다.

한국기독교문학의 회장을 역임한 황금찬 시인은 한 문학 심포지움에서 기독교문학이란 말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대만정도라고 하면서 서양에서는 기독교문학이란 개념이 따로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은 문학의 특성상 맞지 않는 전체이다. 문학은 역사의 산물이며 그 기원은 문명과 문화와 예술의 혼합체에서 찾아진다. 광의의 의미로는 문명의 산물이며 좁은 의미로는 문화의 한 분야이며 더 구체적 의미로는 예술의 한 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문학의 구상은 간접적인 수단에 의하여 형상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추상예술의 한 분야이다.

영국의 문예학자인 테리 이글튼(Terry Eaglton)은 그의 『문학이론(Literary Theory)』에서 '역사적으로 문학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 없이 시도되었다고 전제하고 광의의 의미에서 문학의 영역을 밝혔다. 그는 17세기의 영국문학은 셰익스피어(Shakespeare), 웹스터(Webster), 머빌(Marvell), 밀튼(Milton) 등의 작품과 함께 베이컨(Francis Bacon)의 철학서, 번연(Bunyan)의 정신적 자서전과 같은 순례기 등 모든 인문학을 문학 속에 포함시켰다' 16).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문학이라는 용어 즉 영어의 'literature' 는 원래 문자나 문서를 뜻하는 'litter' 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광의의 의미로는 문자로 기록된 모든 것(everything in point)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문학의 이런 본질 면에서도 『성서』는 문학작품이며 이 천년동안의 기독교역사속에 기독교문학도 그 한 부분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서양에는 기독교문학이란 개념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문학전반에 기독교사상과 가치관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문학은 그자체가 기독교문학으로 맥을 같이한 것이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세계관이나 윤리관은 기독교적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비록 현대의 서양문학이 신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엘리엇과 카프카를 비롯한 위대한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생명과 역사의 바탕인 성서를 근거로 창작하고 있으며 인류는 그들을 통하여 문학의 정신과 생명의 뿌리를 오늘도 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독교 문학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13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기독교문학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각각에

16)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1.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기독교문학 작가와 작품 활동의 구조적 문제점

한국문단에는 기독교 문학을 표방하는 작가협회가 있지만 사회적적으로 독자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선교 초부터 문학의 존재는 설교나 전도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적 정서가 선교와 전도는 열심이지만 영성을 표현하는 창작 예술에 대하여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때문이다. 기독교문학 잡지들은 한국 크리스천 문학 작가협회가 펴내는 『기독교문학』을 비롯하여 대구와 부산 광주 등의 지역의 기독교문학회에서 발간하는 잡지와 『창조문학』, 『창조문예』, 『크리스천문학』 등과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펴내는 문예지들이 있다.

각 작가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성문단에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기독교적 영성과 창조성의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작가들은 시에서 5-6명, 소설에서 10여명이다. 그러나 이들 작가의 작품들은 기독교적 성향이 보이기도하고 또 어떤 것은 전혀 기독교 성을 찾아볼 수 없는 작품들이다.(소설가 이대훈 발제: 한국기독교문학 심포지움 1987 여름)

상대적으로 한국문단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학 작가의 숫자는 수 천 명에 이르고 해마다 등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배출되는 작가의 수도 수 백 여명에 이른다. 물론 이들이 작가로서 동일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학의 양적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계에는 공신력 있는 작가의 등단체도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객관적 기독교작가의 산실이 부재인 상황이다. 이것은 선교문화가 각광을 받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문학이 변방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음 장에서 논의 될 것이지만 기독교문학이란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참여하는 인간의 문학적 소산으로서 문학적 창작활동은 은혜에 속한다. 그러나 성령 체험 같은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 기독교의 역사위에서 현재의 환경과 생활에서 우러나 시간을 두고 결정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열매이다. 기독교문학 작가는 기독교문학을 확산시키는 일을 성경을 확산시키는 것과 동일한 차원이라 생각하여야한다. 때문에 기독교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현재 각 작가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작가들의 작품이 그 기독교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야하고 동시에 기독교작가를 발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 문학의 개념 정립에 관한 문제점

한국에는 ‘기독교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는 기독교문학론이 없다. 90년대의 한국교회의 복음전파의 특징인 문화선교는 문학과 선교를 하나로 묶어 마치 문학의 선교적 특성이 곧 기독교문학의 본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한 신앙고백이나 간증을 소재로 한 글들은 기독교소재론에 집착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일반 문학과 관계 없는 기독교문학을 형성하였다. 개화기 직 후에서부터 현대문학 정착기에 걸쳐지는 한국문학사에도 기독교문학에 대한 언급은 단상정도의 글로 기록이 되었다. 교재로 사용될만한 기독교문학론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 시나 간증문학만이 기독교 소설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기독교문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개념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셋째, 기독교문학작품의 예술성과 작가의 역량의 문제점

기독교 문학은 예술적인 가치와 미학에 있어서도 일반문학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학에 기독교란 문학 외적인 단어가 강하게 압박하게 되면 ‘기독교 문학’이란 예배

와 종교행사에 사용되는 문학이며 기독교적인 소재의 한계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독교적 소재를 하나님의 선물인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미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 문학이다. 문학의 옷을 입고 선교의 직접성을 강하게 풍기면 문학적 설득력이 약화되어 감동이 독자에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독교문학이 문학의 중심부에서 온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앞서서도 지적하였지만 기독교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 작가 군이 열악한 점이 작품의 다양성이나 질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문학작품이 빛을 보도록 하기위하여서는 예술성 못지않게 연구가와 출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성경해석학 이론서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으나 『문학적 성경해석』에 대하여는 그 지침서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학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트럼퍼 롱맨(Tremper Longman) 3세의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을 유은식(문학박사, 안양신학대학)이 『문학적 성경해석』으로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지적 헌신과 현대문학이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융합시키는 하나의 길잡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출판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대증가수 한 명을 만들어 내는데도 대중음악기획사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현실에서 기독교문학 작가를 키우기 위한 출판업계의 투자는 하나의 사명처럼 중요하다고 본다. 기독교출판계는 현실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목회자들이나 국내목회자들의 설교집이나 개인 영성에 관한 책들만을 출판하고 있다.

기독교문학 연구가와 출판사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의 부재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독교문학 작품의 예술성과 작가의 자질을 농할 준거가 없다. 일반 문학 작가들처럼 등단제도를 통해서 등단한 작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부여받아 작품 활동을 하듯이 기독교 문학도 그 준거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독교문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제 3장 기독교문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독교문학은 문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오하고 영원한 진리를 들어냄으로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시는 구체적인 심상이나 이야기를 사용하여 정신(관념적 사상)과 육체(구체적인 심상)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의 기독교적 개념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의 형태로 들어내는 것 이라는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성육화는 사상의 범주 또는 관념의 원리는 아니다. 그것은 단 한번 발생한 유일한 사건이며 그 기적적인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문학적 상징으로 본 기독교 문학은 시를 통하여 관념과 육체의 통일을 가정하듯,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들어내 듯, 문학적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가시화하는 작업이다. 이 때의 감동은 일 차적으로 창조적 상상의 결과인 언어의 미학에서 오는 것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과 같은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문학에서의 창조적 상상력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 아무리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을 강조하여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문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미학적 언어로 표현하여 감동을 줌으로서

하나님의 심오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중의 하나이다.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미와 은총과 그의 세상에 반응하게하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추함과 무질서와 갈등에 대하여도 반응하게 한다. 우리가 문학을 통하여 복락원에의 꿈을 꾸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상호 교류할 수 있고 그 안에 사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문학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문학이다. 따라서 기독교문학의 목적은 인간에게 기여하는 인간의 문학으로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위에 이룩하는데 있다고 정의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의 현대문학은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 현상을 기독교적으로 보면 세속사적 혼돈 속에서 보이는 세계에만 몰입한 나머지 인간존재에 대한 신성함이나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이후 현대사상은 감각적 실증적인 경험의 세계만을 진리로 국한하여 믿음으로서 영원성에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절대 선을 부정하는 데서 기인한다. 영원성은 절대자에게 속한 영역이며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선이 존재할 수 없다. 무신론적 길을 걷고 있는 현대사상은 역사가 토인비의 말대로 정신세계의 종말론적 황혼기인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문학은 인간구원의 한 방주이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에덴회복에의 꿈을 꾀다. 때문에 기독교문학도 세기의 황혼에 접어든 이시대의 종말론적 어둠에 빛을 밝힐 수 있어야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 시대의 제 현상을 끌어안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회복시키고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하는 인간의 문학이 되어야한다는 뜻이다. 이 시대의 문화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특히 니체의 초인사상으로부터 시작된 현대문학에는 신은 죽어있고 신은 적대의 대상이 되었다. 무신론적 사고 속에서는 윤리와 도덕의 준거가 없음으로 진리의 길을 찾기 어렵다. 기독교문학은 이시대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때문에 하나님의 문화를 이룩한다함은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회복을 뜻한다.

따라서 기독교 문학이란 그 속에 기독교적 세계관과 역사관과 인간관이 나타나야한다. 기독교적 세계관 이라함은 자연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과 인간 존재와 세계에 대한 관계성의 인식을 말한다. 기독교적 역사관이란 역사에 대한 엄정성과 함께 역사적 사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 라 하였다. 이것은 과거의 사실(fact)을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사건(event)화 시킨다는 의미이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 시각으로 가감 없이 수용하고 인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로 보는 시각은 더 중요하다. 역사적 사건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 미래의 좌표로 삼아야한다. 기독교적역사관이란 성경에 의해 역사를 해석한다는 뜻이다. 기독교 작가는 자신의 작품의 바탕을 성경적으로 다시 인식한 역사관의 토대위에 세워야한다. 기독교적 인간관이란 신성을 타고난 개별적인 인간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존재의 존엄성과 함께 타락한 인간의 고뇌와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인정한다는 뜻이며 역사관이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말한다.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삶, 즉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삶의 목적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확실한 인식이다. 그리고 기독교적 인간관이란 죄와 구원에 관계된 것으로서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를 통한 세상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작가란 바로 성령의 은혜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가와 작품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게 된다.

그렇다면 문학에 있어서 기독교적 관점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문학은 그 관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문학이란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문학이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미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제와 소재를 미학적으로 형상화 하였든 간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소재들이며 내 작가적 경험과 상상역시 그분의 창조세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W.H. 오든(Auden)도 ‘기독교 문학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마치 기독교적 섭생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 17) 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기독교문학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가. 그것은 문학은 경험을 제시할 뿐 아니라 사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계관이나 인간관을 구체화시키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본주의가 아닌 기독교의 신앙과 일치하는 관점에서 구체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를 부각시켜 영원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모든 작가의 작품들은 도덕적 및 지성적인 편견을 나타낼 수밖에 없으며 문학작품을 기독교적인 신앙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기독교작가들 역시 편견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때문에 나는 서론에서 본고는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패러다임 안에서 조망되는 기독교 문학론이라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기독교문학의 목적설정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근대적 개념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있다. 17-18세기에 시작된 근대과학은 기계로서 우주의 이미지를 설명하였고 그것은 문학적 상상력을 장악하였다. 모든 사물이 역학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는 사고 속에서 시와 문학의 존재의미는 하나의 오락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당대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뉴턴(Isaac Newton)의 시에 대한 견해는 당대의 문학의 위치를 잘 말해준다. “시에 대한 나의 견해는 아이작 바로우(Issac Barrow: 영국의 신학자이며 수학자)와 일치한다. 시란 교묘한 난센스의 일종이다” 18)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낭만주의 시인 키이즈(John Keats)에 의해 혹되게 반박 당한다. 키이즈는 그의 시 라미아(Lamia)에서 과학의 파괴적이고 계몽적인 힘에 대하여 말하면서 신화나 시적 상상력을 박탈당한 인간의 세계가 얼마나 황량하고 매력 없는 지를 보여준다. 그는 뉴턴주의적 관점이야 말로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인간의 능력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막이 오른 서양문학의 최대의 황금기인 낭만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예술적 상상력이 창조적 힘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예술지상주의는 문학이 종교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고를 낳았고 작가들은 문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문학 이론에서는 문학의 확정된 의미의 부정과 함께 모든 문학작품은 허구에 불과하며 언어의 현란한 조합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문예사조의 흐름에 의한 필연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정의된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며 재현이라’는 고전적 정의는 오래 동안 문학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로 통용이 되었다. 그러나 문학이 담아내야하는 이 ‘현실(reality)’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리얼리스트들은 현실이란 거울에 되비치는 실재로서 우리의 실제의 삶과 세계

17) W.H. Auden. "Postscript: Christianity and Art," in *The New Orpheus*, ed., Nathan A. Scott, Jr. (New York: Sheed and Word, 1964) 76.

18) Abrams, M. H. *The Mirrow and The Lamp: Romentic Theory and Critical Trad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300.

를 의미하였고 모더니즘작가들은 조각난 거울에 비쳐진 상이었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작가들은 현실을 재현한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회의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하면서 컴퓨터의 대중화로 활자매체는 쇠퇴해가고 영화나 TV드라마와 같은 서사장르들이 그 지위를 확대해나감에 따라 문학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뿐 만 아니라 새로운 통신공간은 ‘작가와 독자’ 간의 전통적 관계를 허물고 더 이상 일차원적 소통관계가 존재할 수 없게 된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독서 패러다임을 해체시켰다. 정보화시대에서의 문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문학이 재현해야 할 리얼리티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문학의 목적은 바로 이 리얼리티를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성경적 현실 인식은 문학을 단순히 삶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삶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 변형된 삶이든 간에 문학은 그것을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수용할 수 있고 작가의 역량에 따라서 그것을 언어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 작가의 역량이라는 것은 문학을 통해 삶의 현실을 묘사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형언할 수 없는 미의 섬광을 포착하도록 돕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문학이 현실의 삶을 그대로 받아드린다 함은 문학을 통하여 인간을 더 만족스럽고 안전한 곳, 이상향으로 이끌어 낸다는 뜻이다.

이상향이란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입각한 현실이란 뜻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리얼리티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왔다는 사실과 그의 죽음이 죄로 인해 세속화되고 결함투성이가 된 세상을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 때의 문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상호 교류하는 것이며 작가도 독자도 창조 세계안에서 그의 일부로 사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클리언즈 부룩스(Cleanth Brooks)는 ‘인간 조직에 있어서 문학의 작가가 해야 할 일차적인 역할은 ...우리들의 세계에 대한 하나의 자각을,.. 단지 임상적인 초연함 속에서 본 대상물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포함시킨 세계로서의 자각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19)고 하였다. 부룩스가 말한 자각이란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 있음에 대한 인식이다. 기독교작가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기독교문학은 인간의 삶에 기여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문화를 펼쳐 보일 수 있다.

19) Cleanth Brooks, *The Hidden God*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3) 132

제 4장 기독교문학의 정립

본장에서는 기독교문학 작품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문학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험과 상상을 주제로 하여 전개하고자한다. 경험과 상상은 2장에 제시된 기독교문학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필수 조건이며 이 논의는 ‘기독교작가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기독교 문학작품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포함한다. 문학은 작가의 경험을 그의 상상에 의하여 미학적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상상은 문학을 다른 언어예술로부터 구별 지워주는 요소이다. 작가의 경험의 내용과 그의 상상력이 작품의 문학과 작가의 자질을 논할 준거를 제시해준다. 작가란 인간경험을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공유하도록 만드는 일과 그 자신을 미의 대상으로 제공하여 우리의 상상에 의해 예술적으로 관조하도록 만드는 사람인 때문이다.

1. 기독교문학의 본질: 기독교적 경험

기독교문학 작품은 성서로 걸러진 경험의 미학적 표현을 본질로 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 하였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문학적 묘사는 과학적 묘사와는 다르다. 하나님이 만든 미와 은총과 그의 세상에 반응하는 것은 그와의 교류를 통한 구체적인 경험인 때문이다. 문학의 기능중의 하나는 인간의 경험을 예술적으로 쳐들어 올려 독자가 관조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단 스코트(Nathan A. Scott)는 ‘작가는 창조된 세계를 응시하며 눈여겨 보며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관조어로 유인해주는 사람’²⁰⁾ 이라 하였으며 에머슨(Ralph Emerson)은 ‘런캐우스(Lyncaues: 놀라운 시력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신)의 눈이 지구의 땅 속을 투시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시인은 세계를 거울 쪽으로 돌려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올바른 질서와 진행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어야한다’²¹⁾ 고 하였다. 문학은 이 같은 경험을 미학적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며 문학적 상상력이 예술로서의 문학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문학적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과 상상력이다.

독자는 작가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을 그 경험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대해간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고유한 안목이나 선호에 따라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문학은 우리의 눈과 가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과 상상력과 가슴으로 보고 상상하고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우리의 존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 이것이 문학의 존재이유이다. 루이스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확대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자기이상의 것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²²⁾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서적 경험, 즉 성서의 채로 걸러진 경험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로인한 구체적인 영향은 어떻게 들어나는 것일까.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문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경험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인정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감정과 가치에 대해 형식과 표현을 부여해주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잘 표현해준다. 모든 인간은 진리에 의해 살며 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

20) Nathan A. Scott, *Modern Literature and the Religious Frontier*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8) 52.

21) Ralph W. Emerson. *The Poet, in Eight American Writers*, ed., Norman Foerster et. al. (New York: W.W. Norton, 1963) 288.

22) C.S. Lewis. "Preface" to *Paradise Lost* (Oxford Univ. Press, 1942) 3.

간을 기독교적 진리에 의해 살도록 도와주며 기독교적 삶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문학이 기독교문학이다. 따라서 기독교작가는 실제의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간에 자신의 경험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야하고 그 표현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에 준하는 미학적 언어로 되어야한다. 따라서 성서적 경험의 의미는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작품의 소재를 성경에만 국한 시킬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성경의 채로 걸러진 경험이란 심령적인 기쁨을 주는 경험을 말한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우리가 선택해야할 가장 중요한 영역들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책임있게 활용하기를 원하신다.(성경제시) 우리가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여가나 오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듯 기독교문학이 삶에 문학적 기쁨을 주는 것은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심령적인 기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작가는 일방적으로 말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글을 쓴다. 이는 화가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그리려는 의도와 같다. 작가가 심령적인 기쁨에 익숙해져야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성경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마태복음 12:34)라고 하였다. 문학의 기능 면에서 기독교 문학 작가란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쁨을 글로서 말하는 사람이다.

심령적인 기쁨은 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계시와 임재, 죄, 회개, 말씀, 사랑, 부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관념들이 주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기독교문학은 문학성이 우선이다. 심령적인 기쁨이 선교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삶의 예술이어야 하고 교리가 아니라 작가의 살아있는 경험이어야 한다. 심령적인 기쁨에 대한 경험은 작가의 소명이며 이것을 기독교적 인간관으로 완수하는 것이 기독교작가이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문학에 대한 정의를 논한 대부분의 글에서는 차드 왈쉬(Chad Walsh)가 정의한 ‘기독교 문학은 하나님, 그리스도, 영혼등과 같은 단어가 자주 나오는 책, 혹은 교회 생활, 목사, 혹은 헌신적인 영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책’²³⁾ 이라고 말한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문학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러한 소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재에 대하여 문학적 광명을 줄 수 있는 열린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플래너리 오코너(Flannery O'Connor)는 ‘기독교 문학은 반드시 기독교화 된 세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기독교문학이란 소재에 의해서 분류될 수는 없으며 단지 작가가 인간적 또는 신적인 실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의해서만 분류될 수 있다’²⁴⁾고 하였다. 본고가 이 견해를 존중하는 이유는 모든 소재가 기독교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의 세계를 밝혀주는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기독교문학의 본질: 기독교적 상상

기독교문학은 왜 예술성이 결려되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상상의 부재라고 답할 수 있다. 결국 문학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존재하며 작가는 언어를 가지고 집을 짓는 자이다. 문학가의 언어는 조각가의 조상의 대상과 같은 허약한 재료가 아니다. 조상이나 조각보다 더 지속적이며 더 강한 전파력을 지닌 매체이다. 그러나 문학의 실재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시험 될 수도 없는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세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23) Chad Walsh, A Hope for Literature, "in *The Climate of Faith in Mordern Literature*, ed., Nathan A. Scott, Jr. (New YOrk: Seabury Press, 1964) 232.

24) Flannery O'Connor, *Mystery and Manners*, ed., Sally and Robert Fitsgeral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57) 174. 196.

단지 문학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상상에 의해서 뿐이다. 이에 대해 알빈 A. 리(Alyin A. Lee)는 ‘우리는 다만 상상이라고 부르는 이성과 정서의 혼합물을 통해서만 문학을 할 수가 있다’²⁵⁾ 고 하였다.

문학에서 일반적인 정의로는 ‘상상(imagination)은 인상(impression), 의식(consciousness), 감각(sensibility), 그리고 경험(experience)을 포함 하는 것’²⁶⁾ 이다. 작가란 이 개념들은 한데모아 녹여서 다시 가공함으로써 신기롭고 새로운 합성물질을 만들어내는 용광로(melting pot)의 역할을 하는 능력을 지녀야한다. 문학은 상상력에 의해 생명과 호기심을 입증하는 예술이므로 그 형식은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이다. 이것은 한 작가의 정신이나 감성이 글쓰기에 갇히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며 독자는 작가의 이 자유로운 의식에 대하여 온 몸으로 활짝 열린 감응을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 작가의 글쓰기가 교조적인 글쓰기에 갇혀버리면 그 작품은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을 표면화시킴으로서 간증문학 내지 설교 또는 선교문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협의의 기독교 문학속서는 문학적 섬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작품의 성서적 주제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섬광이 없는 글은 독자를 기독교적으로 감동시키지 못한다. 교조적인 말 속에는 기독교적 윤리나 도덕관념들이 있을 뿐 움직임이나 닿음과 같은 생명의 리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서를 읽을 때 그 내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읽는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 때 감동을 느끼고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그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이 때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는 성령이라 한다. 기독교작가의 작품이 성령의 역사와 같은 예술적 생명력을 지녀야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기독교적 소재가 예술성을 지니려면 기독교적 교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글쓰기를 말한다. 그 속에 원초적 일상의 싱그러움이 있고 닿음이 있고 감동이 있다. 나는 이것을 섬광이라 본다. 기독교의 교리나 윤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교훈적인 글에서는 독자는 자신의 불신앙과 왜소함을 부끄럽게 느낀다. 독자는 깊이 깨우침을 주어도 자신을 주눅 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넉넉함을 원한다. 갇힘에서 열림으로 가는 은밀한 통로 하나를 허락받고 싶어 한다. 이 통로가 섬광이다.

섬광은 연약한 실존을 다독여줄 수 있는 은근하고 따뜻한 배려이며 산뜻한 새벽공기 같은 희망의 기운이다. 독자는 기독교문학 작품 속에서 이런 것을 얻고 싶어 한다. 우리를 소외로부터 단절로부터 갈등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나를 너에게로 이어주는 문학, 그래서 문학은 하나의 구원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감동이다.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비난받았을 때 보다 스스로 눈치 채게 했을 때 아주 강력한 힘으로 감동을 받는다. 작가의 능력이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 전율적인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지녀야한다. 작가와 독자는 이렇게 몸으로 맞물려 있어야한다. 이러한 능력은 작가의 능력은 상상의 산물이다.

기독교 문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에도 어려있어야 한다. 우리는 리얼리즘의 전통 속에서 태어나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자란 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핫산(Ihab Hassan)은 “우리 모두는 다소간 리얼리스트이고 다소간은 모더니스트이며 또 동시에 다소간은 포스트모더니스트라고도 할 수 있다”²⁷⁾ 라고 하였다. 만일 문학이

25) Alyvin A. Lee and Hope Arnott Lee, *The Garden and the Wildernes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3) 45.

26) Walter Besant and Henry James, *The Art of Fiction* (Boston: De Wolfe, Fiske & Co.1934) 73-4.

27) Ihab Hassan, “POSTFACE 1982: Toward a Concept of Postmodernism” in *The Dismemberment of*

동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문학은 분명 포스트모던적일 수밖에 없다. 경계를 넘어서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그리고 순수문학과 대중문학 양진영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영향은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전반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도 허물어져 문화영역에서 대중은 막강한 힘으로 문화상품의 구매력을 행사하고 대중의 문화적 안목도 점차 높아져 고급문화의 진영까지 그 자리를 확산하였다.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를 끌어안았듯이 대중을 문학 속에 끌어안아야 한다. 이것은 세속화에 영합하는 하라는 것이 아니다. 비 기독교인들의 관심 속에 있는 소재를 끌어내어 그들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독교적 시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중문화의 기독교적 수용과 함께 기독교 문학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도전은 사이버세계에서의 작가의 관점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정보화시대에서의 문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문학이 재현해야 할 리얼리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 즉 리얼리티의 지시 점을 정하는 것과 그것을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창작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가상현실(hyper reality)의 세계로서 비록 우리가 그 공간 안에 실재 발을 딛고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거대한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

만약 작가가 인간의 이 새로운 창조물인 가상현실의 세계를 문학 텍스트 안에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인간은 문학을 통해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 없게 된다. 가상의 현실까지도 언어예술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상상력과 감동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작가가 시대의 가치판단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문학 패러다임을 만들 사명을 인식한다면 기존의 상상력의 형질변화는 불가피하다

문예사조의 변화와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문학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한 것은 한 사조의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의 신비(논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신비라 정의한다.)가 묶이고 정복당하고 없애져 마침내 실재에 대한 무미건조한 통찰만을 강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문학적 상상력이 말살 당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그것은 문학적 생명의 파멸을 의미했다. 내개인적 견해로는 기독교적 상상이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영적인 힘과 위안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정의 한다. 앞에서 기독교문학이란 개념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상호 교류하는 것이라 정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제 5장 결론

본고는 두 가지의 문제제기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학작품이라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문학은 선교 110주년을 넘긴 현재까지 기독교 문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독교문학의 예술성을 논할 준거가 없음으로 기독교 문학은 일반적으로 정의 되는 문학작품에 비해 작품성과 예술성에서 매우 뒤떨어져 문학의 변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문학의 개념을 미학적 입장에서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 논의는 문학의 역사적 입장에서 일반문학과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문학의 예술적 준거와 기독교작가의 자질에 대한 준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즉 기독교문학은 성서의 채로 걸러진 작가의 경험과 상상의 미학적 표현을 본질로 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을 기독교적 진리에 의해 살도록 도와주며 기독교적 삶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에

Orpheus: Toward a Postmodern Literature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82) 264.

대한 경험이며 상상력이다. 이 모든 경험과 인간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작품의 소재를 성경에만 국한 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독교 문학이란 기독교적 삶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문학을 말한다.

또한 성서의 채로 걸러진 경험과 상상은 심령적인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작가는 심령적인 기쁨에 익숙해져야 자신의 언어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심령적인 기쁨은 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계시와 임재, 죄, 회개, 말씀, 사랑, 부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관념들이 주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다. 심령적인 기쁨이 선교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삶의 예술이어야 하고 교리가 아니라 작가의 살아있는 경험이어야 한다. 심령적인 기쁨에 대한 경험은 작가의 소명이며 이것을 기독교적 인간관으로 완수하는 것이 기독교작가이다.

따라서 “기독교문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상호 교류할 수 있고 그 안에 사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문학인 동시에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위에 이룩하는 도구로서의 문학이다”로 그 개념을 요약할 수 있었다. 때문에 기독교문학의 활성화란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회복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문학의 예술성과 기독교 작가란 누구인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증거는 문학이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미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작가가 어떤 주제와 소재를 미학적으로 형상화 하였든 간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는 소재들이며 작가적 경험과 상상역시 그 분의 창조세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개인적 신념 하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문학은 바로 창조세계의 리얼리티를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성경적 현실 인식은 문학을 단순히 삶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삶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어떤 리얼리티든 작가의 역량에 따라 언어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가의 역량이라는 것은 문학을 통해 단순히 삶의 현실을 반영하기만 하는 차원을 넘어섬을 말하며 삶을 묘사하는 대신에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미의 섬광을 포착하도록 돕는 능력을 말한다. 작품의 예술성은 이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때문에 기독교 문학은 문학성이 우선이다. 문학성이란 한 작가의 정신이나 감성이 기독교적 소재라는 글쓰기에 갇히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며 독자는 작가의 이 자유로운 의식에 대해서 비로소 온 몸으로 활짝 열린 감응을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 작가의 글쓰기가 교조적인 글쓰기에 갇혀버리면 그 작품은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을 표면화시킴으로서 간증문학 내지 설교 또는 선교문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협의의 기독교 문학 속에서 문학적 섬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작품의 성서적 주제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섬광이 없는 글은 독자를 기독교적으로 감동시키지 못한다. 교조적인 말 속에는 기독교적 윤리나 도덕관념들이 있을 뿐 움직임이나 달음과 같은 생명의 리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서를 읽을 때 그 내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읽는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 때 감동을 느끼고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그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이 때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는 성령이라 한다. 기독교작가의 작품이 성령의 역사와 같은 예술적 생명력을 지녀야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소재의 예술적 증거란 기독교적 교리에 가두지 말고 열어주는 글쓰기에 있다. 열어주는 글쓰기란 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깊이 깨우침을 주어도 자신을 주눅 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표현되며 간힘에서 열림으로 가는 은밀한 통로 하나를 더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작가와 독자가 전율적인 생명력을 느낄 수 있

도록 맞물려 있어야한다. 이 때 비로소 기독교문학과 일반문학은 그 예술성에서 동등한 관계이며 관점에 따라서는 일반문학이 기독교문학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또한 본고는 기독교 문학과 삶의 관계성으로 문화의 수혜자로서의 독자와 작가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문학의 향유는 삶의 기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것이 창조세계의 목적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기독교문학의 목적, 즉 인간의 문학으로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위에 펼쳐보이고자 하는 -의 정당성을 밝혔다. 끝으로 본 논문은 기독교문학을 이미 존재하는 문학적 신호들로 전개함으로써 독자에게는 성경문학을 읽는 능력을 고무시키고 기독교 작가에게는 그의 문학적 능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하였음을 밝혀둔다.